

##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

‘12·3 비상계엄’ 윤 대통령 법정구속... 지지자들 법원 침탈 난동  
탄핵정국 장기화에 국민만 고통... 진보·보수 대타협 이뤄내야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양 극단으로 갈라지고 있다. 진보와 보수의 건강한 이념 논쟁은 사라지고 총성 없는 이념 전쟁을 치르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 ‘12·3 비상계엄’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법정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이어지면서 국민 분열은 파국으로 치닫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법원 난입은 폭력으로 이어졌고, 신성한 ‘법의 공간’을 무법천지로 만들었다. 탄핵과 긴급체포 과정을 통해 법 절차에 따르지 않았던 대통령과 사법 불신을 조장한 정치권이 불러온 초유의 ‘법적 재난’을 불러왔다.

또 젊은 세대들이 법정 난동에 나서서 등 폭력의 최전방에 내몰리고 있다.

최근 한국의 진영 간 대립은 마치 해방 정국의 신탁통치를 둘러싼 국민 갈등을 재소환하기에 충분해 보인다. 지난 1945년 12월 28일, 모스크바협정을 통해 한국의 임시정부 수립과 신탁통치가 결정되면서 한반도는 찬탁과 반탁운동이 거국적으로 일어났다. 2025년 설 연휴를 앞둔 최근 한국의 정세도 살얼음판을 걷는 듯했던 해방정국의 갈등 양상과 비슷한 형국이다.

윤 대통령은 ‘12·3 계엄’에 따른 대국민 사과를 단 한 줄도 없이 ‘거대 야당 탓’, ‘부정선거’를 운운하면서 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자신을 지지한 세력에게만 감사하다는 인사말을 남기면서 국민 분열을 조장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요구와 법원의 체포영장까지 ‘불법’으로 치부하면서 경호차와 격렬 극우 지지자들 뒤에 숨어 그동안 ‘불법 영장’, ‘불법 체포’라고 선동해온 검사 출신의 윤 대통령이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있다.

여기에 여당 의원들마저 법원의 정당한 법 집행을 ‘불법’으로 여론을 호도하면서 극렬 지지자들을 선동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치권도 자신들 진영에 불리한 판결이 나올 때마다 검찰과 법원, 판사 등 사법부를 공격한 점도 지금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벼랑끝으로 내몰았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계엄과 탄핵 과정에 ‘정권 수호’에만 집중했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의 잘못된 부분만 지적하고 있다. 더구나 독재의 산물인 ‘백골단’이라는 과격 폭력 수단을 국회 기자회견장에 끌

어들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자신을 겨냥한 각종 사법리스크 속에서 ‘검사 탄핵’ 카드를 남발하면서 법의 신뢰와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이날 폭력 사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에 이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이 체포되면서 국민들의 이념 줄 세우기도 극에 달하고 있다.

총을 들고 국회에 난입한 군인과 이들에게 지금 된 신탁의 숫자는 밝혀지고 있지만 그 ‘책임’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그의 명령에 따랐던 계엄 종사자들이 다른 증언만 토해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들만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

대통령 관저 등에는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집회 참가자들이 밤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들은 은박 담요 등 방한용품으로 무장한 채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한반도의 허리를 관통하고 있는 휴전선뿐 아니라 탄핵 찬반 진영이 만들어 낸 또 하나의 ‘경계선’이 서울 한복판에 설치된 셈이다.

민주당 한 의원은 이와 관련 “정부와 정치권의 무책임한 행태로 국민만 분열되고 있다”면서 “현재 한반도에서 펼쳐지고 있는 양 극단의 모습은 한국전쟁 전후 극심했던 정치적 갈등을 다시 보는 듯 하다”고 말했다.

대통령과 정치권, 극우성향 유투버들은 폭동에 가까운 폭력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하고, 이를 ‘정당한 행위’, ‘불법에 대한 저항’ 등으로 표현하면서 폭력을 부추겼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장시간 ‘일방적 논리와 주장’에만 노출돼 제대로 된 검증 없이 특정 논리에 확산하게 되면서 행동이 더욱 과격해졌다는 것이다

정치권도 갈등을 풀어나가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발의한 각종 법안이 정부의 거부권을 통해 다시 국회로 돌아오면, 국민의힘의 집단 반대로 폐기되고 민주당이 재발의하는 악순환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 과정에 정부도 ‘여야 합’을 핑계로 거부권을 행사하며 계엄과 탄핵 사태 수습을 위한 법적 절차는 사실상 모두 중단된 상태다.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더불어 사는 세상을 준비해야 한다. 보수는 진영 논리를 버리고 민주주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엘리트주의, 혐오 등도 과감히 던져야 한다”면서 “진보는 극우세력의 상승화에 대응하면서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설 연휴 27~30일 신문 쉽니다



설 명절을 앞둔 23일 광주 북구청어린이집 원생들이 민속놀이 한마당 행사에서 한복을 차려입고 세배를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김용현, 윤 대통령 살리기 나섰다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 포고령 작성 등 기존 증언 반복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또 출석했다.

이날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4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관련기사 2면> 이날 변론기일에는 첫 증인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출석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한 증인이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이 김 전 장관이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먼저 신문문을 해야한다고 주장해 헌재가 수용했다. 국회 측은 증인들이 진실한 증언을 할 수 있도록 윤 대통령 퇴진이나 가림막 설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김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직접 증인신문도 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포고령 1호 등과 관련해 “기억 나느냐”고 묻자 김 전 장관은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라고 대답했다.

윤 대통령은 “12월1일, 또는 2일 밤에 장관께서

관저에 그걸(포고령) 가지고 오신 거로 기억이 됩니다”라고 운을 폈다. 이어 “포고령을 보고, 포고령에 뭐 사실 법적으로 검토해서 손필 건 많지만, 계엄이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도 어렵고 집행 가능성도 없고, 사회 법규에 위배되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그렇지만, 그냥 놔둬서라고 말씀드리고 나왔는데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고 묻자 김 전 장관은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합니다”고 답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포고령 1호 작성과 비상입법기구 설치에 관해 윤 대통령과 엇갈린 증언을 할 것으로 예측됐던 것과 다른 진술을 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질문에 기존 증언을 반복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미 구속된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 살리기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되면 현직으로 복귀해 사면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에서 증언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즐겁고 건강한 설 연휴 보내세요



- 한홍구 “민주주의 위기 5·18 기억해야” ▶3면
- 설 연휴 불만 영화·문화 나들이 ▶10·11면
- 전라도가 좋다, 전라도 외국인 ▶12면
- 일하는 청년 빛나는 미래 - GGM ▶22면
- 설 연휴 TV 프로그램·하이라이트 ▶23~25면

| 설 연휴 날씨 | 24(금) | 25(토) | 26(일) |
|---------|-------|-------|-------|
|         |       |       |       |
|         | -1/12 | 0/11  | -1/9  |
| 27(월)   | 28(화) | 29(수) | 30(목) |
|         |       |       |       |
| 2/5     | -2/3  | -2/4  | -2/5  |

사랑과 감사의 71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 정부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약속한

# 전라남도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

### 온 도민의 염원으로 이루어내겠습니다

**국립목포대·국립순천대, 국립순천대·국립목포대가 통합하여 하나의 대학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 작년 12월 31일,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가 2026년 3월 통합대학 개교를 위해 교육부에 대학 통합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 지역 상생과 화합의 가치를 담은 대학통합과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에 의미 있는 첫발을 내딛게 된 것을 온 전남도민이 전폭적으로 응원하고 정부에서도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 글로벌대학으로 선정된 양 대학의 통합은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거점 국립대학으로 성장하는 든든한 발판이자,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이끄는 모범적인 성공 사례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 전라남도는 역사적인 통합대학교가 초일류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또한 양 대학의 통합은 도민의 30년 염원인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실현 시킬 강력한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은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의 사령탑 역할을 담당하며, 우리 지역에서 도민 모두가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 전라남도는 어려운 대학 재정 여건을 감안해 동·서부 지역에 신설될 대학병원 설립도 힘껏 지원하겠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1도 1국립대학의 선도 모델인 대학 통합과 정부 담화문을 통해 약속한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과 의대 정원배정을 신속히 이행할 때입니다.

- 전라남도는 도민의 건강권·생명권 확보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대학 통합과 국립의과대학 신설이 완료될 때까지 도민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200만 도민께서 한마음으로 응원하고 힘을 모아주십시오!